

제9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04.09.(화) 16:00 ~ 17:30

2.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3. 참 석 : 위원 총 13명 중 8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노재성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불참위원 : 강동훈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김흥환 평의원, 박준희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 배석 : 의과대학장, 기획처장, 미래전략팀장

4. 의 안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5. 주요 회의 결과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

- 이재호 의장은 제10기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하며, 학생평의원은 위원 교체가 진행 중임을 설명하다.

○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의과대학장은 2025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주요 교육시설의 확충계획을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대강의실 수업을 위한 해강관 지정 공간 활용에 대해 의과대학이 사용 우선권이 필요함을 본부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인지하고 있음을 답하다. 추가적으로 7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의 우선 사용권과 20여 평의 wet lab 공간을 본교에서 제공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다.
- 이재호 의장은 2025학년도 1학년 학생 정원이 120명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된 것에 대해 현 1학년 학생의 휴학 여부를 고려할 시 170명까지 1학년 학생이 증가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다. 의과대학장은 4월 17일 의과

<간서명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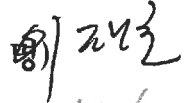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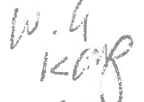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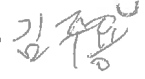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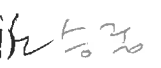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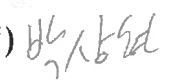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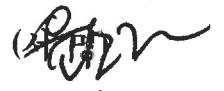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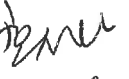
의 장

0/129

대학 정원 증원 관련 학생, 학부모 등 관련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2025학년도 학생 정원이 예측 가능할 것이라 설명하다. 이에 이재호 의장은 4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학평의위원회에 학생 정원 예측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청하다.

- 이재호 의장은 현 의학문헌정보센터를 학생 자율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시 지정좌석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학생들과 상의했는지 질의하다. 의과대학장은 증원 후에는 학생 수와 공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처럼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생들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임을 설명하다. 소수정에 의과대학의 장점이었으나 대규모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실제 대규모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타 대학 중 고정 좌석으로 학습공간을 운영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을 덧붙이다.
- 노재성 의원은 금번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학교의 실익에 의문을 제시하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원 배정 신청 전 교육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정원을 제시했으나 학교가 그보다 더 많은 정원을 신청했으며, 의과대학은 학생 수 증가가 등록금 수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다. 이에 차기 대학평의위원회에 의과대학 학생 증원과 학교와 병원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청하다. 이재호 의장은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학교의 증원 신청 및 교육부의 배정 결과 이후라는 점에 유감을 표현하다.
- 이재호 의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질의하다. 또한 해당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상황과 부담 주체를 확인하다. 의과대학장은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사학진흥기금 용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기획처장은 2025학년도 정원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어야 예상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며,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예측하고 있다고 답하다. 또한 학교법인, 학교, 의료원이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기에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임을 설명하다.
- 강원구 의원은 동문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재호 의장은 차기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하다. 의과대학 학생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에서 정원 통보를 하면 학교는 학칙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대학평의위원회도 준비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볼 것임을 언급하다.

2024.04.09.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이재호	(서명) 
평의원	강원구	(서명) 
평의원	김주용	(서명) 
평의원	노승중	(서명) 
평의원	노재성	(서명) 
평의원	박상현	(서명) 
평의원	윤소라	(서명) 
평의원	호정화	(서명) 
간 사	윤정용	(서명) 